

T V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가정의 달 기획 인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잠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장미의 전쟁>
30 KBS 뉴스	00 희망미래이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9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산 세상	0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여성공감 55 비론말 고운말	00 지추준 뉴스 20 TV특강(재)	11 00 일일연속극 <남자를 믿었네(재)>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00 인강장 스페셜 1~2부(재)	12 00 MBC 뉴스 25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00 SBS 12 뉴스 30 KBC정책대담 <이만희 환경부장관에게 듣는다>
00 KBS 걸작선 <신데렐라 언니(재)>		1 15 수목미니시리즈 <로열패밀리(재)>	30 도전! 슈퍼대(재)
00 KBS 뉴스 10 2011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10 퀴즈쇼 사총사(재)	2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항이 보인다
	00 KBS 뉴스타임 05 와글와글 꼬꼬말(재) 35 애플앤디(재)	3	10 테마스페셜(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청주>	00 특집 TV유치원 <아이 러브 KBS <만나고 싶어요 파니파니> 30 달기가 좋아	4	00 MBC 뉴스 10 뽀뽀보 아이조아 40 매직 테일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가정의 달 특집 사랑의 가족 30 성공예감	5	10 연예플러스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소 담신의 여섯시	6	00 6시 뉴스메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가정의 달 기획 <러브 인 아시아 제1편>	10 생생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
25 일일연속극 <웃어라 동해야>	40 KBS 뉴스타임(광주 전남) 50 1대100	8	15 일일연속극 <남자를 믿었네> 55 MBC 뉴스데스크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 드라마 <동안미녀>	9	55 MBC 특별기획 드라마 <썩패>
00 시사기획 KBS 10 45 세계는 지금		10	
00 KBS 뉴스 라인 40 콘서트 필	15 김승우의 승승장구	11	15 PD수첩
25 KBS 뉴스 35 KBS 특선월드 <비류은 사원 복원의 대모험>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12	10 MBC 뉴스24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프라임 <집은 낡았어도 글자도 빛나는 양동마을>

백수, 국제 첩보전에 휘말리다

KBS 2TV '완벽한 스파이' 8일 첫 방영

부상으로 은퇴한 뒤 백수로 지내던 전직 야구선수 혁범은 대학 동기 상준으로부터 물리치기 힘든 제의를 받는다. 부산으로 가서 가장 하나영 운반해 오면 거액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기대에 부푼 혁범은 단짝 친구 진욱과 함께 부산으로 향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살인누명과 끝없는 추격전뿐이다. 오는 8일 첫선을 보이는 KBS 2TV 드라마스페셜 연작시리즈 '완벽한 스파이'(극본 한상운, 연출 박현석)는 평범한 청년이 국제 첩보전에 휘말리면 서 겪게 되는 소용돌이를 그린 첩보드라마다. 지난해 10월 방송된 KBS 드라마스페셜 '텍사스 안타'의 한상운 작가·박현석 PD·배우 손현주가 다시 모였고 '프레지던트'의 김홍수,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내 사랑 금지옥엽'의 유인영이 남주연인공을 맡았다. 2일 서울가도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박현석 PD는 "단막극은 보통의 드라마보다는 소재나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 드라마 혹은 영화의 경계지점까지 나아가는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가장 운반 아르바이트를 맡았다 영문도 모르고 첩보전에 휘말리게 되는 주인공 김혁범은 배우 김홍수가 연기



한다. 김홍수는 "대본을 받았을 때 영화대본 같아서 좋았다"면서 "대개 스파이물 하나면 하나의 큰 조직과 쫓기는 조직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완벽한 스파이'에서는 쫓기는 사람이 여럿이다. 쫓고 쫓기는 사람이 얽히고 설켜 톤이나 쿼터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범의 여자친구인 대장항문의과 레이던트 이민정 역은 유인영이 맡았다. 유인영은 "민정이는 대박하고 밝은 친구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자살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에 따른 아픔을 지니고 성장한 사

일본인과 함께 '신얼씨구학당' 7일 방영

광주MBC는 일본인 관광객들과 함께 녹화한 '신얼씨구학당' 방송분을 오는 7일 오전 7시55분 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지난달 8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인기 여배우 구로다 후쿠미씨(55)와 일본 오사카문화원에

와 민요의 발생 등을 직접 배우며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을 체험했다. 특히 정경화 명창이 들려주는 '심청가' 무대에서는 판소리에 한껏 때려뭉쳐 반응이 뜨거웠고 고수에 맞춰 직접 추임새를 넣기도 했다. 또 진행자 백금렬, 지정남의 구수한 입담과 사투리에 큰 웃음을 보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녹화는 "한국과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26년째 한류를 전하고 있는 구로다 후쿠미씨가 이끄는 '구로다 후쿠미의 3박4일 전라도기행'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구로다 후쿠미씨는 "문화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hki@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일(음 4월 1일 戊午)

子	36년생 뒤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라. 48년생 모든 일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60년생 뜻 이룰 기회 놓치지 마라. 72년생 불연이면 시비에 휘말릴 수니 조심하라. 84년생 새로운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2,32	午	42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54년생 나에게 불편한 일을 내 탓으로 생각하면 만사가 편하다. 66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78년생 무촌의 부부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8,36
丑	37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 살펴 가라. 49년생 수족의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61년생 실물수는 있으나 재물이 들어온다. 73년생 아내 건강 살펴봐라. 85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대단히 불리해진다. 행운의 숫자 : 06,41	未	43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이다. 55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7년생 부모에게 효도 하는 것 중요시 하라. 79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2,37
寅	38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멋지게 행동하라. 50년생 재물과 처에 사달림이 있을 수 있다. 62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아내와 이해가 부족 하니 대화가 필요하다. 74년생 재사가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 10,28	申	44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해야 할 때다. 56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나 쉽지않은 않다. 68년생 소탐대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80년생 슬픔도 기쁨도 한꺼번에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15,34
卯	39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수니 준비를 잘하라. 51년생 주변의 변화가 손재로 들어오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63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하라. 75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 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3,27	酉	45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가능한 피하라. 57년생 애인과 즐거움은 있으나 마무리가 서운하다. 69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않다. 81년생 이성을 만나보라 좋은 진행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0,16
辰	40년생 춘화기가 발달하면 망신수가 발생한다. 52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지만 조심심 있게 판단하라. 64년생 흉보다 길이가 더 많으니 안심하고 보내라. 76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 행하라. 행운의 숫자 : 18,42	戌	46년생 일실일득,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58년생 자기 자랑보다 동료를 칭찬하라. 70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82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 예의를 지키라. 행운의 숫자 : 22,33
巳	41년생 헛것 달려보면 결과가 좋으리라. 53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65년생 기상천외한 황재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가가 증가된다. 77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3,43	亥	47년생 지출도 투자로 생각하라. 59년생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은 내어주라. 71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83년생 공짜 술에 범이 나니 곁에다 가지마라. 행운의 숫자 : 24,39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EBS	
06:00 신나는 인생 5678 <김광숙씨의 모델 도전기>	09:35 팀가방 이야기 09:50 깨미 10:05 로보의 별나다 여행 10:30 최고의 요리비결 <한복선의 손쉽게 차리는 진수선상>
06:30 직업의 세계 <일인자>	11:00 60분 부모 12:00 EBS 정오 뉴스 12:10 TV 평생대학 <역사이야기>
07:00 미스 스피어더와 개구쟁이들	13:00 세계대마케팅 <한국기행(장성)>
07:25 내 친구 티미	14:00 다큐프라임 <한양의 뒷골목>
07:35 꼬마리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14:50 외국인용을 위한 한국어(중급)
07:45 뽀뽀보 뽀로로	15:20 뽀뽀보 뽀로로(재)
08:00 뽀뽀보 유치원	
08:20 로보가 풀리	
08:35 우당탕탕 아이쿠	
08:45 띠루 띠루	
09:15 꼬마버스 타요	
09:50 방귀대장 뽀뽀이	
09:25 도와줘요 코랄리 형제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풍구워	한자 이야기
<p>That's what I thought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p> <p>A : I am thinking of taking a vacation day tomorrow. B : Sounds like fun. A : What is my schedule like tomorrow? B : You do not have any appointments. A : That's what I thought. B : I will mark you as out then.</p> <p>A : 내일 하루 쉬려고 생각중이에요. B : 좋으시겠습니다. A : 내일 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B : 아무런 약속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A :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B : 그럼 저는 선생님이 부재중인 것으로 해두겠습니다.</p> <p>* 제 업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What does my work schedule look like? * 목요일 아침까지는 모두 비어 있습니다. = All clear until Thursday morning.</p>	<p>月とすっぽん。 천양지차</p> <p>A : 彼の日本語は右に出る者がいないです。 B : そうですか。彼女も上手だそうですね。 A : 彼と彼女の實力は月とすっぽんの差がありますよ。 B : そんなに差があったんですか。 A : 그의 일본어는 더 이상 맞설 사람이 없어요. B : 그렇습니가. 그녀도 잘한다던데요. A : 그와 그녀의 실력은 천양지차가 있어요. B : 그렇게 차이가 있었어요.</p> <p>[단어정리] 右に出る 앞서다 上手だ 능숙하다 月と蠶 천양지차(달과 자라) 糞泥の差 천양지차(구름과 진흙)</p>	<p>歩后尘 bù hòu chén 걸음 뒤에 일어나는 먼지처럼</p> <p>중국어를 모르는 분은 이런 글자 - 尘 - 나오면 긴장 합니다. 尘은 간체자이고, 塵은 번체자로는 塵입니다. '먼지 진' 자 이지요. 塵을 손으로 바꾸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번체자 '塵'은 '사슴(鹿)의 무리가 지나가면 흙(土)에서 먼지가 일어난다'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간체자 '尘' 塵(土)에서 작은 개소' 물러오는 묘사로 바꾸었네요. 간혹 간체자 보면 더 상충된 다른 면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歩后尘'은 '걸음'이란 뜻의 '부(步)'와 '뒤 후(後/后)', '먼지 진(塵/尘)'으로 구성되어 '걸음 뒤의 먼지'라는 의미인데, 관용어로 쓰여 '남의 걸음을 따라 하다'는 의미를 갖고서 '남이 한 것을 답습하거나 혹은 남을 모방'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겸손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이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다소 폄하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p>	<p>五十步百步(오십보백보) 다섯 오, 열 십, 걸음 보, 일백 백, 걸음 보</p> <p>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는 백 보를 물러간 사람이나 오십 보를 물러간 사람이나 도망한 사실에는 양자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p> <p>맹자(孟子)가 위(魏)나라 혜왕(惠王)의 초청을 받았을 때, 혜왕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국강병 해질 수 있느냐 물었다. 그 물음에 맹자는 "싸움터에서 양쪽 군사가 싸우려고 할 때, 어떤 병사가 대단히 겁을 먹고 백 걸음쯤 도망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병사는 도망을 치다가 한 오십 걸음을 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백 걸음 도망친 놈을 보고, 비겁한 놈이라고 욕을 했다고 침시다. 어떻습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혜왕은 "오십 보나 백 보나 도망친 데에는 다름이 없잖습니까?" 맹자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것을 아신다면 임금님, 이웃 나라보다는 자기 나라 백성을 많이 보살피겠다고 하시는 임금님의 소망도 이와 비슷한 것이겠습니까."</p> <p>[출전] 『맹자(孟子)』 * 급수 : 한자능력검정 8급, 8급, 준4급, 7급, 준4급</p>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